



KDI FOCUS

2015년 6월 5일(통권 제57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 이종규 연구위원(044-550-4097)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이종규 | KDI 연구위원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무연탄 수출은 수출단가 하락, 중국 철강경기 부진, 구조조정계획,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24 조치 이후 최근 5년간 유지되던 북한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북한경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북한 무연탄은 별다른 수출경쟁력이 없는 가운데 경화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의 40.4%(2011년), 41.3%(2012년), 42.7%(2013년)를 기록했다. 이는 약 13.7억달러(2013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수출품목(철광

* 본고는 Jong-Kyu LEE, "What Determines DPRK'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DPRK'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2), forthcoming, 2015, pp.40~64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석, 의류, 수산물 등)에 비해서는 물론 각종 외화 확보 채널인 휴대전화사업, 개성공단, 노동력 수출, 관광 등을 통한 수익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북한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확보된 경화는 북한경제에 안정적인 물자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생필품, 자본재, 전략물자 등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3년 연속 플러스 성장과 물가·환율의 하향 안정 추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전문 학술지인 『경제연구』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도 무연탄 수출이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강경희(2012, p.55)는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맞추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들여다 쓰면서도 다른 나라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김향숙(2010, p.40)은 “외화수입을 늘이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외화지출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품목의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영옥(2013, p.34)은 “자원을 채취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은 전망적으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지하자원 수출을 통한 경화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중국 내수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될 뿐 중국 내 어떠한 요인이 실제적으로 수출을 전인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북한 내부 사정과 경제정책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요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현황

2013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역대 최대 무역량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기인한다. 2013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KOTRA 기준으로 89.1%에 달했다.¹⁾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북중무역이 갑자기 감소함에 따라 2014년 무역액은 2013년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대중 수출은 28.4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2.4% 줄어들었으며, 수입은 35.2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북중무역 전체 규모는 63.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2.8% 줄어들었다. 북한경제의 기본구조 자체가 식량, 원유, 생필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당국에서는 2014년 북중무역의 감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원유수입통계가 없는 것으로 잡힌 대중 수입(-3.0%)에서뿐만 아니라 수출(-2.4%)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1) UN 기준으로는 84.1%, IMF 기준으로는 73.8%에 달한다. 각각의 데이터에 따른 차이는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8-05, 한국개발연구원, 2008을 참고하라.

〈표 1〉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단위: 억달러, %)

	HS	품목명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701	석탄	13.8	15.1	11.4	-17.7
2	2601	철광석	3.0	20.1	2.2	-25.7
3	6201	남성코트	1.3	42.6	1.6	24.2
4	6203	여성코트	1.2	28.4	1.5	25.1
5	6202	여성재킷	1.2	32.3	1.4	17.6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29.1	17.2	28.4	-2.4

주: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해관총서(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

〈표 2〉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단위: 만달러, 만톤, 달러/톤)

	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2001	171	9	19.8
2002	734	41	18.2
2003	1,543	75	20.7
2004	4,909	157	31.2
2005	10,827	280	38.6
2006	9,653	248	38.9
2007	16,261	374	43.5
2008	20,126	254	79.3
2009	25,378	360	70.5
2010	38,619	460	83.9
2011	112,685	1,105	102.0
2012	118,979	1,181	100.8
2013	137,371	1,649	83.3
2014	113,218	1,543	73.4

주: 2009년은 보정된 데이터 사용. 보정 데이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p.5 참조.
 자료: 중국해관총서(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

그중에서도 주력 품목이었던 석탄(대부분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표 1). 특히 석탄의 경우에는 약 17.7% 감소했으며, 이는 2014년 전체 대중 수출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연탄 수출단가는 2013년의 톤당 83.3달러에서 2014년에 73.4달러로 하락하면서 수출총액이 줄어드는 ‘가격효과’가 나타났다. 수출량도 2013년 1,649만톤에서 2014년 1,543만톤으로 줄어드는 ‘물량효과’가 나타났다. 북한이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최초로 수출가격, 수출총액, 수출물량이 동시에 떨어진 것이다(표 2). 무엇보다도 수출물량의 감소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의 급격한 확대요인 중 단가 상승에 의한 가격효과는 18%에 불과했던 반면 중국의 내수 확대로 인한 물량효과는 82%에 달했기 때문이다.²⁾

실제로 중국은 약 36.5억톤(2012년 기준)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무연탄 수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2005년부터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

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중국의 내수 확대, 무연탄 생산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꼽힌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산과 북한산 무연탄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2013년과 2014년에는 북한이 베트남을 제치고 가장 많은 양의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북한산과 베트남산 무연탄이 대체재는 아니다. 탄질이 좋은 북한산 무연탄은 철강사나 요업사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질이 좋지 못한 베트남산 무연탄은 주로 지방의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산 무연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부의 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강소성 등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나, 베트남산 무연탄은 남부의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호남성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무연탄은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까운 지역 위주로 거래

2014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북중무역 전체 교역액까지도 감소하게 되었다.

북한산 무연탄은 산업별로는 철강사나 요업사에서, 지역별로는 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강소성 등에서 많이 소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에서는 북중무역 증가의 원인을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로 각각 분해했는데,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했다.

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별로 북한 무연탄 수출의 패턴을 분석해야 양국 간 무연탄 거래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북한 무연탄의 수출 감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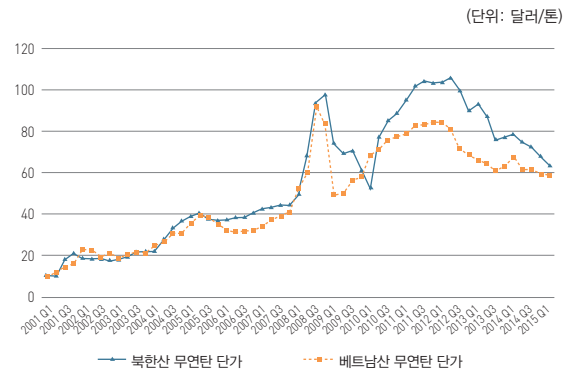
1. 가격 측면: 대중 수출단가 하락

전 세계적인 석탄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하강 등에 영향을 받아
북한산 무연탄의 가격이
2011년 102달러에서
2014년 73.4달러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무연탄의 수출단가는 2011년 톤당 102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2년부터는 줄곧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 말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 중 하나로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가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톤당 73.4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져 3월 수출단가는 톤당 62.4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단지 북한산 무연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베트남산 무연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2011년 톤당 82.7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4년 톤당 62.5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시세 역시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단가 하락 추세가 북·중 간 냉각되는 정치적 관계보다는 전 세계적인 석탄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하강 등 경제적 배경이 더 크게 작용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다음은 북한산 무연탄이 수출되고 있는 상위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장 많은 양의 무연탄을 수입하는 산둥성의 경우 2013~14년간 단가 하락(-12.6%)이 직접적으로 수출총액

〔그림 1〕 북한 무연탄의 수출단가 하락 추세



주: 2009년은 보정된 데이터 사용. 자세한 설명은 p.5를 참조.
자료: 중국해관총서(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

〈표 3〉 주요 지역의 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2014년)

	北 무연탄 수출 비중(%)	금액 (백만달러)	물량 (천톤)	단가 (달러/톤)
산둥성	44.6	504.7 (-14.1)	7,149 (-1.7)	70.6 (-12.6)
하북성	20.5	232.0 (-25.9)	3,217 (-16.3)	72.1 (-11.4)
강소성	17.6	199.6 (-2.8)	2,545 (6.0)	78.4 (-8.3)
요녕성	12.7	143.8 (-36.6)	1,842 (-27.5)	78.1 (-12.6)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해관총서(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

(-14.1%)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조(日照)시의 철강업체, 임기(臨沂)시의 도자기 및 니켈 제련 업체, 치박(淄博)시의 도자기 업체 등이 주요 수요처로 파악되고 있다. 단가 하락이 총액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강소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수출물량(6.0%)이 늘어났음에도 단가가 하락(-8.3%)함으로써 수출총액(-2.8%)이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 하북성과 요녕성의 경우 수출물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총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북성의 북한 무연탄 수요처는 당산(唐山)시와 천진(天津)시의 철강사들로 알려져 있으며, 요녕성의 경우 중소 철강업체와 도자기 업체들이 주요 수입처로 파악되고 있다.³⁾

주요 지역별로 봐도
단가 하락은 수출액 감소에
공통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4〉 북중무역의 통계적 단절(2009년)에 대한 보정

(단위: 만달러, 만톤)

월	중국해관통계						UN Comtrade	
	북한		기타 아시아		북한 + 기타 아시아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1	1,459	19	-	-	1,459	19		
2	1,626	21	-	-	1,626	21		
3	2,397	33	-	-	2,397	33		
4	3,374	50	-	-	3,374	50		
5	3,312	48	-	-	3,312	48		
6	4,544	65	-	-	4,544	65		
7	4,032	59	-	-	4,032	59		
8	-	-	3,420	47	3,420	47		
9	-	-	1,018	14	1,018	14		
10	-	-	49	0.7	49	0.7		
11	-	-	29	0.4	29	0.4		
12	119	2	-	-	119	2		
합	20,863	297	4,515	63	25,378	360	25,619	360

자료: 중국해관총서; UN Comtrade(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

2. 수요 측면: 중국 철강산업 부진

수요 분석에 앞서 북중무역 통계에 대한 약간의 보정작업을 거치도록 한다.⁴⁾ 2009년 북중무역 데이터에 통계적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8~11월). 이는 최근의 북한 대외무역 흐름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핵실험이 2009년 5월에 있었고, 뒤이어 UN의 제재가 이어졌는데, 이 시기에 북중무역이 없었다고 해석을 하면 마치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정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된 바는 없지만, 2009년 중국해관통계에서 그동안 없었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아시아국'이라는

〈표 5〉 회귀분석: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 결정요인

		기본 데이터 (관찰 수 = 325개)	보정 데이터 (관찰 수 = 327개)
수요	전력 생산량	-1.06 (0.73)	-1.06 (0.72)
	철강 생산량	1.71*** (0.36)	1.70*** (0.36)
가격	수출단가	-1.28*** (0.45)	-1.24*** (0.45)
경기	지역 성장률	-0.42 (0.59)	-0.40 (0.59)
제재	UN 결의안	1.13 (1.01)	1.15 (0.09)

주: 1) ()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2) 로그분석, 상수항과 시간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3) 하우스만테스트에 의해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사용함으로써 거리요인은 제외.
자료: CBC; Globeleed; 중국해관총서(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석탄, 원유, 석유제품, 곡물 등과 관련된 통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북무역이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2009년 8~11월 중국해관총서에서 끊긴 '북한 항목'과 '기타 아시아국' 항목의 월별 통계를 합하여 UN 연간 통계와 비교해 보면 금액과 총량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⁵⁾

이와 같은 보정작업을 거친 후 중국 성(province)·분기(quarter)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⁶⁾ 성별 북한 무연탄 수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무연탄 최종 수요요인(전력 생산량, 철강 생산량), 경기요인, 가격요인, 거리요인, 제재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이 중에서 유의한 변수가 북한 무연탄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산 무연탄 수출은 중국 지역 철강 생산량에 강한

2009년 8~11월

중국해관총서에서 끊긴

'북한 항목'의 데이터와

'기타 아시아국' 항목의

월별 통계를 합하면

UN 연간 통계수치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 현지조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의 방경진 실장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석 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4-07, 한국개발연구원, 2014 중 제7장(이종규, 「대외무역」)을 참고하라.

5) 이는 철광석, 원유, 석유제품,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품목에서 두 항목을 더했을 때 UN의 연간 통계수치에 근접한다.

6) 중국 22개 성, 4개 직할시, 4개 자치구(티베트 제외) 등 총 30개 지역과 1998년부터 2013년 4분기까지 총 64개 분기별 자료를 이용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연탄을 수출했던 지역이 중국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고, 13개 지역은 아예 수출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관찰 수는 훨씬 적다.

회귀분석 결과,
북한 무연탄 수출은 중국의 지역
철강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는 반면, 전력 생산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의 지역 철강업체로 가장 많이 수출된다는 현지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중국의 지역 철강 생산량이 10% 증가할 때 그 지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은 약 17%가량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중국 철강산업 부진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 감소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무연탄 단가도 영향을 미쳤는데, 단가가 상승하면 수출량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⁷⁾ 나머지 전력 생산, 지역 경기, UN 안보리 결의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3. 정책 측면: 환경규제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향후 중국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북한 무연탄 수출환경이
점점 더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가격과 수요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중국의 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른 불리한 여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수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계획이 북한 무연탄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air pollution action plan)’은 2012~17년 동안 석탄소비 감축 목표를 성별로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산동성(5%), 하북성(13%), 천진시(19%) 등으로 정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무연탄을 수출하는 지역들에서 감소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9월 중국은 ‘무연탄 품질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무연탄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오염물질을 함유한 저질 무연탄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회분, 유황, 수은, 비소, 인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무연탄을 운반한 선박을 그대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2015년 2월 산둥성 일조(日照)항에 도착한 북한산 무연탄이 수은 함량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조치되기도 했다.⁹⁾

중국 중앙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계획도 큰 부담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이에 따라 철강의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2014년 중국 철강업체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과거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실패했던 2005년 사례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정책 추진은 비효율적인 설비를 가진 지방의 중소 철강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017년까지 1억톤 규모의 경쟁력 없는 설비를 폐쇄할 것임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에 벌칙적 규제(전력요금 페널티, 은행차입 제한, 지방보조금 삭감 등)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¹⁰⁾ 이 역시 북한 무연탄 수출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V.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를 되돌아보면 3년

7) 다만 수출단가의 경우, 다른 대용변수 사용, 변수조합의 변화 등에 따라 유의성이 변화.

8) 추가로 종속변수를 중국의 성별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으로 바꾸어 추정을 해보았는데, 추정식, 변수조합, 데이터 보인 등의 변화에 따라 각 변수의 유의성이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델로 베트남산 무연탄의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9) 『연합뉴스』, 「중국, 북한산 무연탄 품질 미달 이유로 반송 잇따라」, 2015. 4. 14.

10) 한국신용평가, 「철강산업 7대 이슈 점검」, 2014.

연속 플러스 성장, 물가 및 환율의 안정, 상대적으로 양호한 식량수급 등 일부 부문에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물가 및 환율 변동률의 경우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사회 제재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지하자원 수출의 대규모 확대를 통한 외화확보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획득한 경화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자본재,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는 구조가 5·24 조치 이후 5년간 지속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무연탄 수출 감소는 북한 대외무역 구조는 물론 북한경제 전반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로 판단된다.

문제는 향후에도 대중 무연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첫째,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무연탄도 대체로 국제시세 흐름을 따랐는데, 향후 국제시세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무연탄 수요도 확대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까지 북한 무연탄 수출은 중국 철강산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는데, 향후 중국 철강업계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연탄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산업을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규제,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등을 고려한다면 수출여건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환경이 변하는 시점마다 무역구조를 바꾸어가면서 대응해 왔었다. 과거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일본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제재로 대일무역이 막히자 바로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을 늘려 대중무역 적자를 대남흑자로 메우는 구조를 확립한 선례가 있다. 이번 전환점에서도 북한은 대외무역 구조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표방하는 대외무역 다각화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불균형한 대외무역 구조가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례로 2013년 대중무역 규모가 60억달러를 상회한 데 비해 대러시아 무역(한국을 제외한 2번째 교역상대국)은 1억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에 불과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0억달러까지 확대시키기로 했으나, 북중무역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뿐 아니라 이 수치 또한 목표에 불과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은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무역상대국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표방한 대외무역 다각화, 수출품목 다양화, 해외투자 유치 등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직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대북정책 및 통일논의가 오히려 북한의 변화속도를 늦추고, 북한경제를 이질화시킴으로써 향후 경제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당국이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북정책¹¹⁾을 검토함으로써 교착관계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

향후에도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11)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제교류, 민간부문 중심의 문화교류 활성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합의 도출 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희, 「외화수지 불균형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8-05, 한국개발연구원, 2008.
- 김향숙, 「외화수지 관리의 본질」,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연합뉴스』, 「중국, 북한산 무연탄 품질 미달 이유로 반송 잇따라」, 2015. 4. 14.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종규, 「대외무역」, 이석 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제7장, 연구보고서 2014-07,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최영옥, 「실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전략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 한국신용평가, 「철강산업 7대 이슈 점검」, 2014.
- LEE, Jong-Kyu, "What Determines DPRK'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DPRK'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2), forthcoming, 2015, pp.40~64.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5. 4).